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 출범식」 개최**
- 디플정 관련 해외진출 전략 논의, 정보 공유·협력 체계 구축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함께 11.25(토) 부산 벡스코에서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진 위원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나성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 강근형 외교부 정보관리기획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준희 한국소프트산업협회 회장, 김종갑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대표, 네이버 ESG 대외정책대표,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위장이 참석했다.

오늘 출범한 민관 협의체인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는 정례회의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을 논의하고, 각종 해외 시장(국제표준, 통상이슈, 글로벌 소비 트렌드 등) 및 기관별 지원사업 정보를 공유하며, 다양한 협업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조준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 위원이 협의회 의장을 맡고, 행안부, 과기부, 기재부, 외교부 등 해외진출 지원 부처는 물론,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다.

특히, 네이버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메가존클라우드(주), 더존비즈온, 한국조폐공사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진출 관련 기업들이 협의체에 참여, 해외진출 과정의 어려움과 제도개선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제기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고진 위원장은 “오늘 출범식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한 톱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협의체가 “관련 기관간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해외진출과 관련된 핵심적인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 하겠다”라며

“최근 영국과 체결한 ‘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계기로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도국 시장에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진출하는 기회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데이터와 서비스가 막힘없이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과 같이, 얼라이언스를 통해 유관 부처·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준희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 의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벌써 관련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 디지털 시장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담당 부서 < 총괄 >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책임자	과 장 백승일 (02-750-4771)
	민관협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염민호 (02-750-4772) 전문관 박성원 (02-750-4774)
< 공동 >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손성주 (044-205-2781)
	국제디지털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최보희 (044-205-2789)
< 공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손종걸 (044-202-6115)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류현식 (044-202-6118)